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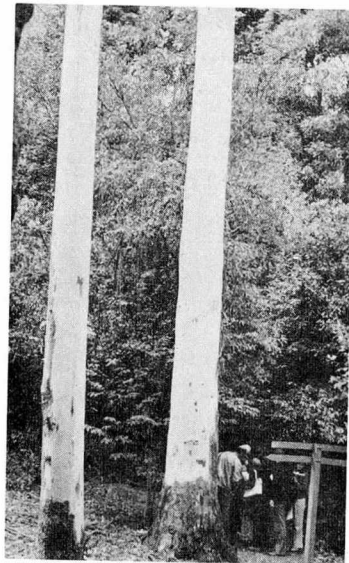
이모저모...世界的 國立公園

濠洲 호주에는 국립공원이 많고 곳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겠으나 시드니부근에 있는 몇개 국립공원을 보고 느낀 이야기이다.

맑은 날씨에 흔한 벼락

첫째로 그지역은 落雷(벼락)가 많고 그것도 맑은 날에 치는 것이다. 우리 나라 같으면 낙뢰는 거의 비오는 날에 있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호주에 있어서는 비오지 않는 맑은날에 벼락이 친다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신기하다.

시드니부근의 국립공원을 만들고 있는 나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칼피가 그 주인공이고 그밖에 방크시아, 카슈아리나 등이 있다. 유칼피 나무의



◇...유칼피 나무의 일종. 줄기가 백목처럼 희다. 유칼피의 잎은 야생동물의 좋은 먹이로 된다.◇

이는 곳이 거의 없으므로 물을 마시기 위해 땅으로 내려올 필요 없이 유칼피 나무잎만 먹 것으로 만족하고 물을 마실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유칼피 잎만 먹고사는 코알라 교미·출산·육아 모두 나무위서

성행위도 나무위에서 출산도 육아도 나무위에서 하는 것이다. 코알라나 캥가루는 무기를 가지지 못하는 까닭에 절대평화의 환경안에서만 지낼수 있는 동물이다.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그나라의 정책은 철저한 느낌이 있었고 동시에 사람이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마음과 몸을 잘 다지고 있었다. 한장의 나무잎이라도 따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그곳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날씨가 건조하고 공기의중 습도가 낮아지면 산불이 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이것을 알리는 산불경보기가 국립공원에 설치되어 있었고 산을 찾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산불조심에 더 한층 신경을 쓰고 있었다.

본받을「철저한 동·식물 보호」

우리 나라의 국립공원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수종은 우리가 더 다양하고 산천지세의 변화의 묘도 우리쪽이 더 다양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온갖 야생동물을 그안에 잘 보호, 유지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시드니부근의 국립공원에는 캥가루는 거의 없고 훨씬 내륙쪽으로 들어가야 있다.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라도 자연상태에 살고있는 캥가루는 보기 어렵다고 한다.

평생을 나무위에서 땅을 딛지않고 나무잎만 먹고사는 野生動物들

잎은 기름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숲안에는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칼피는 줄기껍질이 자연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땅위에 쌓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물질은 불쏘시개와 같아서 불끼만 있으면 불이 붙어 폭발상태에 있다. 이때 벼락이 때리면 영낙없이 산불이 나게 된다.

낙엽은 山火의 불쏘시개

이러한 원인의 산불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전에 막기 어렵다.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 빨리 진화하여 피해면적을 좁힐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이와같은 산불이 나면 그곳에는 낙엽과 떨어진 줄

기 껍질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다시 산불이 나지 않는다.

나무主種 유칼피 백m까지

높이가 100m에 이르는 유칼피 나무가 있다. 유칼피 나무의 잎은 각종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평생 이나무의 잎만 먹고사는 동물이 있다. 누에는 평생 뿔만 먹고 살며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평생의 수명을 잘 끝내는 나무 위에서만 지내는 소형의 것도 있다. 코알라는 작은개만한 크기의 사랑스러운 순한 동물인데 곰갈기도 하고 강아지 같기도 하다. 이 코알라라는 동물은 평생 유칼피의 나무위에서 지낸다고 한다. 그곳에는 땅위에 물이 고